

# 速記界

第 23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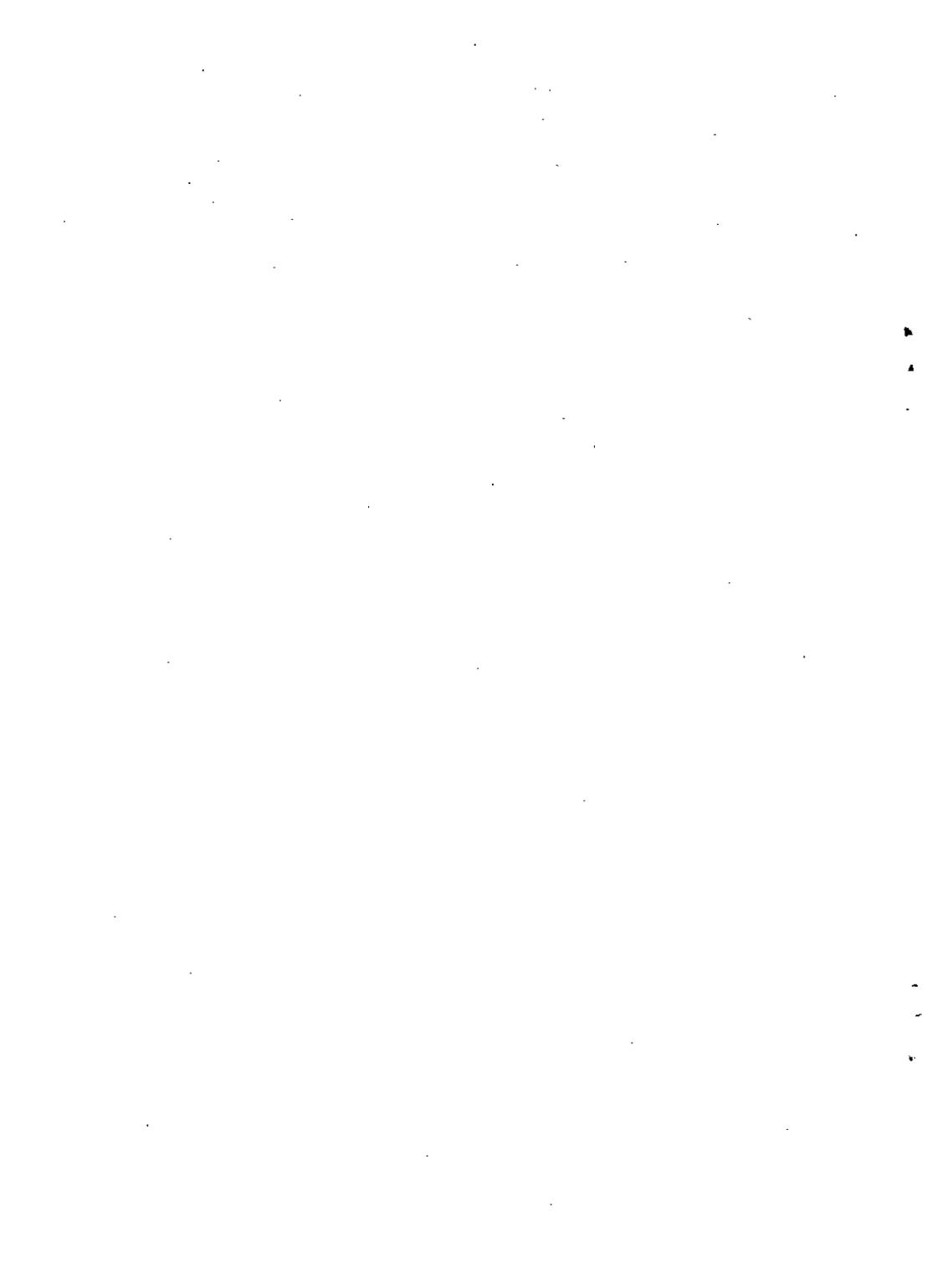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 目 次

速記界

第23號 1983. 1

3	《新年辭》 새해를 맞는 우리의 각오	會 長 朴 權 欽
5	* INTERSTENO와 外國速記界의 近況	金 基 英
10	* 速記士資格檢定業務, 韓國職業訓練管理 公團에 移管되다	資格審査委員會
14	速記수첩	편집위원회
19	會 員 文 壇 (詩) 幻想曲	權 寧 燦
20	《수필》 첫발을 내디디며	임 회 용
22	《꿈뜨》 왜지머리의 웃음	이 주 성
24	第11回 全國速記人 體育大會	金 正 德
27	■ 用語解説 ■	研究委員會
30	■ 速記士資格檢定試驗(19, 20回) ■	
33	○ 소식란 ○	
35	第15回 定期總會	總 務 部
44	會務日誌	總 務 部
9	速記料金表	
13	속기에 관한 상담을 받습니다	
29	원고모집	
32	속기인 주소록 안내	
43	會費納付	
45	편집후기	





## 새해를 맞는 우리의 각오

會長·國會議員 朴 權 欽

親愛하는 會員 여러분!

多事多難했던 82年 한 해도 저물고 새 希望과 跳躍을 向한 癸亥年 새 아침이 활짝 밝았습니다.

먼저 會員 여러분의 幸運과 健康을 기원하면서 지난 1年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速記界 第23號의 發刊을 여러분과 같이 慶祝하고자 합니다. 되돌아 보면 지난 1年은 例年에 못지 않게 國內外的으로 어려움이 계속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特히 그 中에서도 經濟的으로는 資源의 問題를 둘러싼 各國의 露骨的인 保護貿易主義의 경향은 成長의 발판을 구축하려는 우리 經濟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政治的으로도 世界到處에서 局地的 紛爭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 그런 海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國際的 狀況下에서도 그동안 우리는 大統領 閣下의 成功的인 「아세안」 5國 및 「아프리카」 巡訪·그리고 太平洋沿岸國의 頂上會談提議에 대한 對象國의 肯定的 反應, 또한 韓·美修交 100周年을 맞이하여 友邦과 第3國家와의 紐帶를 더욱 돈독히 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왔고 國內的으로는 꾸준한 物價의 安定과 3大 否定心理의 積極的 追放으로 우리 國民들의 成長潛在力을 內外에 파시한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親愛하는 會員 여러분!

憲政史와 함께 成長·發展해 온 우리 速記界도 이제는 다시한번 돌이켜보고 反省해야 할 時點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勿論 간간 훌륭한 여러 先輩들에 의해서 持續的인 發展이 계속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最近 들어 더욱 「템포」가 빨라진 産業社會의 發達速度에 比하여 본다면 該程度의 差異가 심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是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本人은 平素에 느끼고 생각해온 몇 가지 점을 지적하면서 새해에는 會員 여러분들과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째는 速記文字 및 速記方法의 體系的 改善問題입니다.

갈수록 多枝化와 專門化 그리고 「스피드」化해 가는 환경에 對處하기 위해 速記文字와 速記方法이 보다 科學的이고 體系的으로 研究·改良되어야 하겠읍니다.

가까운 先進外國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譯文 및 印刷의 機械化, 「컴퓨터」化가 進行되고 있고 그 水準 또한 상당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는 事實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各國마다 상이한 文字와 風習등 文化生活的 差異가 있다 하겠으나 언젠가는 우리도 도달해야 할 急先의 課題라고 하겠읍니다.

둘째는 速記文化의 발달 및 그 普及問題입니다.

우리는 世界에 자랑할 만한 우리 固有의 훌륭한 言語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한 우리가 固有한 速記文字를 開發 使用하고 있다는 事實은 度外視되고 있는 것이 現實情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速記를 하나의 記錄이나 職業의 手段으로서가 아니라 言語文化의 側面에서 速記가 理解되고 一般에게 普及되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세번째는 速記의 활발한 國際交流問題입니다.

이제는 宇宙家族이라고 할 정도로 좁혀져 가고 있는 現時點에 本協會의 Intersteno(國際速記打字聯盟)加入은 물론 速記의 國際間 交流도 本格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外國의 發展된 速記方式을 導入하고 나아가 우리의 固有한 速記文化를 外國에 전함으로써 國威 및 外交「체면」에서의 一翼을 擔當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確信합니다.

이상 간단한 몇가지 點을 指摘했지만 이것은 우리 會員 모두가 參與하는 가운데서만이 達成될 수 있다고 믿읍니다. 특히 今年에는 Intersteno가입이 우리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때인 만큼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로 알찬 협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끝으로 會員 여러분의 家庭에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기를 眞心으로 祈願하면서 新年人事경 發刊辭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 INTERSTENO와 外國速記界의 近況

外國語部擔當理事 金 基 英



本稿는 1981年 以來 外國語部의 活動과 最近 外國을 旅行하고 돌아 오신 會員 여러분들의 見聞內容을 土臺로 한 몇몇 나라들의 速記界 近況이다.

## 一. INTERSTENO

그동안 當協會와 Intersteno事務總長 Karl. Gutzler氏와는 1980年 7月 15日 以來 數次에 걸쳐 書信交換이 있은 끝에 1982年 6月 「비엔나」에서 열린 中央委員會에서 우리 나라의 團體會員(National Group)加入案을 第35次 總會의 議題로 採擇하기로 滿場一致로 決議함으로써 今年 7月 16일부터 22日까지 「스위스」의 「루체른」에서 열릴 豫定인 INTERSTENO 第35次 總會에서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韓國이 25번째의 會員國이 될 可能性이 크다.

INTERSTENO(International Federation for Stenography and Typewriting) 즉 國際速記打字聯盟은 「스위스」에 本部를 두고 있고 會長은 현재 Marcel Racine <스위스>이며 1887年 「런던」에서 첫번째

모임을 가진 이래 1981年 西獨 「만하임」에서 34次 總會가 열렸으며 中央委員會는 매년, 그리고 總會는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總會時마다 速記 및 打字의 國際大會가 동시에 開催된다.

大韓民國의 速記界를 代表하고 있는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가 Intersteno에 National Group으로 加入코자 하는 目的은 첫째 世界 24個國이 加入되고 이미 100年의 歷史를 갖고 있는 同國際民間機構에 加入함으로써 多數 會員國間에 專門分野의 情報를 相互 交換하여 우리 나라의 速記文化 發展에 寄與하고,

둘째 同機構의 各種行事에 적극 參與하여 國威를 宣揚하고,

세계 東歐圈 國家를 포함한 會員國들과 交流를 함으로써 民間外交活動의 一翼을 擔當하여 速記人으로서 國家에 奉仕코자 하는 데 있다.

當協會에서는 外務部 文公部와 協議를 마치고 美·日代表들과도 緊密한 連絡을 취하는 가운데 速記 및 打字界 人士도 代表團을 構成하여 今年 「스위스」總會에 派遣하여 會員加入이 되도록 노력할 豫定이며 今年 總會에서는 우리 나라의 加入案이 處理되는 外에도 1) 議會速記業務의 組織과 機能 2) 速記錄作成上의 訂正의 原則 3)

速記와 打字 등 事務技術의 教育目的 등에 대해서 討議가 이루어지고 速記 및 打字 國際競技大會도 開催될 예정이다.

Intersteno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機會에 다시 記述하고자 한다.

## 二. 日 本

社團法人 日本速記協會와는 이미 오랜 동안 交流가 있어 月刊인 「日本の速記」가 繼續 到着되고 있으며 우리가 發刊하는 速記界도 每年 보내어지고 있다. 「日本の速記」를 통해 日本速記界의 움직임과 파악할 수 있었으나 日本內의 英文速記界의 事情을 알 수 없어 問議書信을 讎바 1981년 10月 29日 日本速記協會 理事長 石渡 潔氏로부터 田鎖源一씨를 紹介받고 日本에서의 速記士資格檢定에 대한 資料도 받았다.

82年 1月 14日 田鎖源一씨에게 書信을 띄워 Intersteno에 관한 事項, 美國速記界에 관한 事項, 日本에서의 英文速記에 관한 事項을 問議한바 同年 3月 13日 Intersteno와 美國速記協會에 관한 資料가 同封된 回信을 받았다.

同年 4月 17日의 大韓速記協會 理事會가 Intersteno加入을 議決함에 따라 田鎖源一씨에게도 4月 23日자로 書信을 띄워 알리는 한편 協調를 付託하고 그 間의 連絡에 대해 感謝의 뜻을 表했으며 日本速記協會에는 今年이 日本速記 100周年紀念 行事가 있는 故이므로 日本速記界의 100周年을 祝賀하고 田鎖源一씨를 통하여 많은 協力을 얻은 것에 感謝하는 한편 日本速記協會의 發展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書

信을 發送하였다.

同年 5月 6日 田鎖源一씨로부터 Intersteno加入節次 會費 代議員數에 대한 消息과 自己가 6月의 中央委員會에서 發言하기 위해서 韓國 速記界의 實態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書信이 到着되었다.

同年 5月 24日 田鎖源一씨에게 韓國速記界의 實態를 알리는 書信을 내고 中央委員會에서의 協力을 부탁했다.

同年 12月 6日 田鎖源一씨로부터 日本速記發表 100年祭의 內容과 Intersteno中央委員會 所息이 왔으며 83年 7月 「루체른」에서의 「로비」活動에 대해서도 協力하겠다는 書信이 到着되었다.

日本은 今年이 速記發表 100周年이 되는 故이어서 9月 19日 大阪에서의 百年祭를 始作으로 東京에서는 10月 28日 Intersteno 名譽會長인 西獨의 「호릿츠·헤켈」博士가 參席한 가운데 紀念行事가 있었으며 競技大會 研修會 討論會 등이 있었고 速記史 年表 速記者名鑑 百年紀念誌 등의 編纂業務에 臨하고 있다.

衆議院에는 135명의 速記士가 있으며 本會議는 익일 委員會는 7日에서 20日 사이에 會議錄이 發行되고 있다.

日速協會에서는 今年中 速記檢定試驗을 4回 實施한바 7,364名이 應試하여 2,391名이 合格하였다. 우리나라의 速記人口와는 현격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00年祭 速記競技大會에는 62歲의 選手도 參與하였고 最初로 速記 Type를 사용한 사람이 2位에 入賞하였다.

日本地方議會의 速記業務內容과 一般社會에서의 速記活用狀況등에 대해서는 追後에 記述할 機會를 갖고자 한다.

### 三. 美 國

1981年 2月 2日 美上院 Chief reporter G. Russell Walker씨에게 1. 美國速記協會의 住所 2. 美國에서의 速記士資格檢定制도 3. 速記士養成制度 등을 問議하는 書信을 理事長 申世華名義로 發送하여 同年 2月 25日 回信을 받았는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都市地域에 速記士를 養成하는 많은 學校가 있다.

2. 많은 學生이 機械速記를 배우고 있다.

3. 가장 명성있고 원하는 速記職은 上院의 速記職이다.

4. 上院에는 6名의 速記士가 있으며 年俸 52,687弗을 받고 있다.

5. 缺員이 생겼을 때 充員基準은 ①保管中인 支援者書類中에서 審査해서 3人을 選拔한다. ②美國速記協會에서 施行한 資格試驗에 合格한 사람으로서 協會에 加入한 사람을 우대한다. ③議會聽聞會에 關한 速記經歷이 10年내지 15年이상 되어야 한다. ④세사람은 「인터뷰」를 받게 되며 議會聽聞會에서 速記한 「노트」와 翻文한 原稿를 參考한다. ⑤文章能力을 알기 위하여 文法 單語使用 語彙力 文章構造 등에 關한 試驗을 實施한다. ⑥上院 事務總長과 議論하여 適任者를 選拔한다.

6. 上院은 1년에 160日내지 170日 開會되며 全體 會議時間은 1,100時間 내지 1,200時間이다.

7. 非會期에는 10日間을 除外하고는 勤務할 것이 要求되지 않는다.

8. 有能한 速記士를 採用하기 위해서는 議會速記士의 月給水準이 상당히 높히 策定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2年 5月 27日 下院 Office of official Reporter의 Director인 Geraldine C. Lyda (女性)에게 몇가지 內容의 說問書를 넌바 같은 事務室의 Reporter인 R.C. Cochran 이 당시 Mervyn M. Dymally(民 California)下院議員 事務室에 勤務中이던 鄭哲賢事務官(國會涉外局)을 통해 보내 온 答辯書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美上院에는 速記士가 6名 下院에는 18名이 勤務하며 年俸이 5萬弗 정도이고 委員會의 記錄은 外部에 請託을 주고 있으며(Contractor라 칭함) 그들은 年 4萬弗 정도를 벌고 있다.

2. 美陸軍을 除外하면 政府의 支援을 받는 養成機關은 없으며 많은 商業學校에서 基礎過程과 研究過程을 가르치고 있고 1分當 125單語 내지 150單語水準의 試驗을 實施한다.

3. 美國速記協會의 住所는 National Shorthand Reporters Association, 118 park Street, S.E., Vienna, Va, 22180 U.S.A.이고 會長은 Ervin Gross이고 電話番號는 703/281-4677이다.

4. 우리나라의 INTERSTENO 加入에 대해서는 美國側 代表인 Harry Foster씨와 連絡할 것을 勸했으며 그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住所는 117South 17th Street, Philadelphia, Pennsylvania, 19103, U.S.A.이다.

이번 書信을 통해서도 美國의 速記士資格檢定制도에 대해서는 情報를 入手하지 못해서 8月 14日 Geraldine C. Lyda와

R.C. Cochran에게 回信에 대한 感謝의 書信을 보내면서 追加로 質問書를 보냈으나 아직 回答이 없다.

또한 美國速記協會 會長 Ervin G. Gross N.S.R誌 Editor인 Mary L. Gilman 美側 Intersteno 代表 Harry J. Foster등에게도 書信을 써우고 앞으로 兩國 速記界가 폭 넓은 情報交換을 하기로 提議했다.

R.C. Cochran에게서 同封되어온 N.S.R誌 81年 12月號의 內容을 잠깐 紹介하면 「좋은 글쓰기」와 Intersteno에 관한 두가지 주요한 主題를 專정으로 하고 있으며 速記 「오디오」 「컴퓨터」 등의 原稿作成에 관한 記事가 중점적이었다. 그리고 NSRA 부서의 일반적인 내용과 속기사들의 직장 전선에서의 문제점등이 나와 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CAT System과 募集 그리고 個人事務所 광고가 많다는 것이다.

美國에는 12,000名の 職業速記士가 있으며 그 중에 9,000名이 「프리렌서」라고 한다. 현재 10名の 速記士中 6~7名은 速記 Type를 使用하고 나머지가 Hand-writer로서 점차 速記 Type를 利用하는 추세에 있으며 翻文에 있어서도 Computer의 도움을 받아 신속을 期하고 있다.

美下院의 會議錄(Congressional Record)亦是 本會議錄은 익일에 發刊되고 있으나 委員會 聽聞會 등의 會議錄은 時日이 걸리고 있다.

美國에서도 速記業務의 機械化에 대한 論議가 활발한데 그 한 例로서 美聯邦司法院에서 Reporter가 tape recorder로 代用될 수 있다면 1,360萬弗이 節約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1時間의 法廷記錄을 原稿로 만드는데 Reporter는 6時間이 걸

리는데 tape recording의 경우 18時間이 걸린다. 打字수가 1時間當 8page를 原稿作成하는데 비해 CAT System(Computer Aided Transcription)의 경우 100page를 作成할 수 있다. 美國의 約 2,000名の 速記士가 CAT System을 현재 使用하고 있다. 따라서 Reporter 代身에 tape recorder를 使用하기 보다는 職員들의 技術的 變化에 초점을 두게 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現在 美國市場에 나와 있는 5個 主要 CAT System은 Baron Transcription Center, Cimarron, Xscribe, Steno-CAT, Tom CAT이나 이것을 購入하거나 賃貸하기 前에 機能, 價格, 使用者들의 助言 등 필요한 情報를 얻을 필요가 있다.

最近 到着한 Harry Foster씨가 NSR誌 Editor Gilman女史와 共同名義로 보낸 書信에 의하면 NSR誌를 繼續 우리 協會에 보내기로 發送付에 記載하게 되었고 곧 NSR誌가 到着될 것이라고 한다.

#### 四. 其 他

英國의 경우는 國會報 191號 114page와 116page 117page에 掲載된 바를 引用하면 下院의 速記局(Department of the Official Reports)에는 編輯長(Editor)를 비롯하여 首席速記士(Senior Reporters) 10名 速記士(Reporters: including trainees研修生 包含) 18名 翻文職員(Transcribers) 25名 기타 20名등 74名이 있다. 이들 Reporter들은 採用前에 적당히 訓練되어 있어야 하며 몇名의 上位職員은 前職 言論人 出身이고 이들보다 더 能熟한 速記士는 없을 정도이고 熟練된 Reporter들을 위해

서昇進機會가 頂上까지 開放되어 있다.  
 濠洲의 경우는 黃寅河會員의 旅行報告에 의하면 上下兩院을 補佐하는 事務處와 別途로 同級の 速記處가 있어서 監督官 (Sub-Editor) 10名 速記士 18名이 12名의 打字手와 함께 本會議의 경우 Daily Hansard는 익일에 發刊하고 完全히 校正된 것을 1週日마다 Weekly Hansard로 綜合本을 發行하고 있다고 하며 本會議 中心制라 委員會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速記하지 않고 全院委員會와 上院의 豫算委員會단 速記를 하며 公聽會와 같은 證言을

聽取하는 委員會의 경우는 錄音을 하여 政府印刷所(government printing office)에 보내면 印刷所에 있는 Tape Transcription Centre의 速記士 編輯員 打字手에 의해서 會議錄이 만들어지고 있다.

自由中國 立法院에는 20名의 速記士가 있으며 本會議 委員會 共히 6日後에 會議錄이 發行되고 있다.

그 동안 外國語部의 活動을 도와 주신 趙隅石, 高用培, 李承哲, 金珠成, 李淳英 會員과 도움말을 주신 여러분에게 感謝를 드린다.

## 속 기 요 금 표

1982. 5. 1 시행

속 기 기 본 료	1 시 간 당	100,000원
녹 음 제 생	"	110,000원
건 문 분 야	"	130,000원
외 국 어 속 기	"	150,000원
요 점 속 기	"	80,000원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총속기요금의 4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 후 번문에 착수한다.
- 지방 출장시에는 상기 요금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요지작성료는 상기 요금외에 매시간당 15,000원씩 가산한다.
- 우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 이 요금표의 적용은 1급 및 2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 상단 법인 대 한 속 기 협 회

주 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1-1  
 (국회사무처 속기과내)  
 전화 7802-2471~6

## 速記士資格檢定業務

###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에 移管되다

#### 資格審査委員會

1969年 大韓速記協會가 發足된 이래 速記士資格檢定業務는 本協會의 가장 중요한 機能 가운데 하나였으며 速記人의 資質向上과 協會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추진해 온 主要業務內容을 概括적으로 살펴보면 1969年 5月 1日 制定된 資格審査 및 檢定規定附則 第1條에 의해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서 5年以上 速記實務에 종사한 者」中 資格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서 152名에게 1級資格을 經過檢査로써 認定하였고 1970년에서 1982년에 이르기까지 20회에 걸친 速記士資格檢定試驗을 실시하여 國語 668名 英語 167名을 合格시켜 速記人의 底邊擴大와 速記術의 發展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던중 韓國技術檢定公團이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에 吸收 統合하여 新設됨에 따라 技術資格에 관한 業務를 勞動部長官이 一括管理하도록 하고 技術資格檢定の 實效性을 확보하고 技術人力管理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1981年 12月 31日 國家技術資格法의 改正과 1982年 4月 29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改正으로 當 協會에서 施行하던 資格檢定業務를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에 移管하게 되었다. 그 관계된 法條文은 아래와 같다.

◎ 國家技術資格法 第14條(技術資格의 基準등) ① 다른 法令에 의한 資格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技術資格에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資格의 等級 基準 및 名稱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에 의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4조(법에 따라야 할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 :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법에 따라야 할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등급기준 및 명칭에 관하여는 별표 9를 준용한다.

◎ 별표(※)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과 동종 동등한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 : 國회속기사양성소설치규정에 의해서 1급~속기 5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기술자격취득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 본법 상공회의소법 國회속기사양성소 설치규정 및 종전의 산업교육과정 각종 실무능력검정 규칙에 의하여 주산·부기·타자 또는 속기에 관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대통령령 제 728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취득자로 된 자로서 아직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기술자격취득

자 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부칙 제 4 조  
(다른 법령에 의한 검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 제 14 조 제 1 항 및 이 영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따르면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타자·주산 및 부기의 검정과 국회속기사양성소 설치규정에 의한 속기의 검정은 1982년 6월 30일까지는 제 3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법령에 의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法的 根據에 의해 그간 勞動部와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에 本協會業務

一部를 引繼 및 協調한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1982年 4月 2日 勞動部로 부터 1981年 12月 31日 國家技術資格法이 改正됨에 따라 勞動部에서 추진하고 있는 年度別 職種別 級別等 檢定全般에 대한 總括現況 作成에 參考로 활용하기 위해서 當協會의 事務能力資格取得者(速記士資格取得者)現況을 通報해 달라는 協調依頼가 있어 1982年 4月 12日 別表(1級~5級까지)와 같이 勞動部에 總收檢者 1,641名중 合格者 641名 그중 70年以前 經過措置에 의한 資格取

速記士자격취득자 현황

연도별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총 계
		수검자 합격자	211	40	12	28	
75년	수검자						148
	합격자	7		4	13	4	28
76년	수검자						156
	합격자	15	1	2	4	28	50
77년	수검자						204
	합격자	18	3	13	16	13	63
78년	수검자						197
	합격자	24	4	4	28	9	69
79년	수검자						85
	합격자	8	4		9	2	23
80년	수검자						86
	합격자	12		3	3		18
81년	수검자						176
	합격자	18	7	2	9	4	40
82년총계	수검자						1641
	합격자	313	59	40	110	119	641

得者 139名 70年以後 81년까지 資格檢定 試驗에 의한 合格者 502名을 通報하였다.

2. 勞働部檢定 1455.9—25062(1982年 9月 9日)의 관련에 의거 大韓速記協會에서 施行하던 登錄關係書類를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에 1982年 9月 22日 아래와 같이 移管하였다.

가. 引繼引受書類目錄 : 速記士資格檢定 試驗合格者名單 1部

나. 引繼引受書 1部

引繼者 : 大韓速記協會資格審査委員會 幹事 權寧燦

引受者 :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人力課 長 최진탁

다. 年度別 種目別 登錄者現況

(※ 1982年 勞働部に 報告한 資料와

조금 數字上으로 差異가 나는 것은 分類方法에 의한 差異임)

3. 1982年 11月 13日 勞働部로부터 國家技術資格檢定制度變遷過程에 대한 資料 通報要請과 關係官會議에 참석해 달라는 要請이 있었다.

4. 1982年 11月 22日 15時 金仁寧前理事長이 代表로 關係官會議에 參席했다.

5. 1982年 11月 24日 國家技術檢定業務資料(國會速記士養成所設置規定과 速記士資格檢定制度의 變遷過程)을 通報하였다.

6.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大統領令 第 10802號 1982年 4月 29日 全文改正)과 부칙 제 2조 제 1항의 規定에 의거 1982年 12月 10日 아래와 같이 書類를 구비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에 國家技術資格手帖發

년도별 속기사자격검정 현황

년도	자격종류 및 등급					비고
	속기 1급	속기 2급	속기 3급	속기 4급	속기 5급	
계	317	60	40	113	117	
70년이전 (경과조치합격자)	152					
70	13	6	6	1		
71	8	4	2	1	11	
72	16			3	28	
73	8	17	2	11	17	
74	5	13	2	12	3	
75	9		4	13	4	
76	15	1	1	3	20	
77	18	3	13	16	13	
78	24	4	4	28	9	
79	8	4		9	3	
80	14		3	3		
81	16	7	2	9	4	
82	11	1	1	4	5	

給申請을 하였다.

가. 國家技術資格取得者登錄申請書 各 1部

나. 國家技術資格取得者登錄申請을 위한 照會申請書 各 1部

다. 合格照會者名單 各 3部

總 117名中 1級 113名(1970年以前 經過 措置資格取得者 32名, 1970年以後 81名) 2級 4名의 申請을 個別的으로 받아 一括 管理公團에 申請하였다. (후후 國家技術 資格 手帖이 發行, 通報되는데로 우승해 드릴 예정)

이상과 같이 速記士資格檢定業務가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에 移管됨에 따라 1970年以後 1982년까지 大韓速記協會主管 速記士資格檢定試驗에 응시하여 合格한者중 이번 기회에 國家技術資格手帖發給申請을

못한 者는 후후 필요한 때 韓國職業訓練 管理公團에 서류를 具備하여 (도장 證明寫 眞 2枚) 發給을 申請하면 된다. 그리고 1983年以後 國家技術資格試驗(속기부문)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韓國職業訓練 管理公團에서 실시하는 資格試驗에 應試하 기 바란다.

끝으로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에 建議코 자하는 것은 試驗을 年 2回 봄·가을에 실시하여 國會速記士養成所 其他 私設學 院學生들이 適期에 試驗에 應試資格을 取得함으로써 公務員任用規程上 打字나 珠 算과 같이 速記도 0.5點 내지 1.5點의 加 點制度가 채택되도록 努力하여 줄것. 그 리고 出題 朗讀 採點 등의 實務面에 있어 좀더 科學的이고 體系的인 進展이 이 루어 것으면 하는 바이다.

##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 (Counselling of Shorthand)

國語 및 英語 速記關係資料, 學習, 請託等 速記에 관한 모든 問議는 本協會 涉外部에서 取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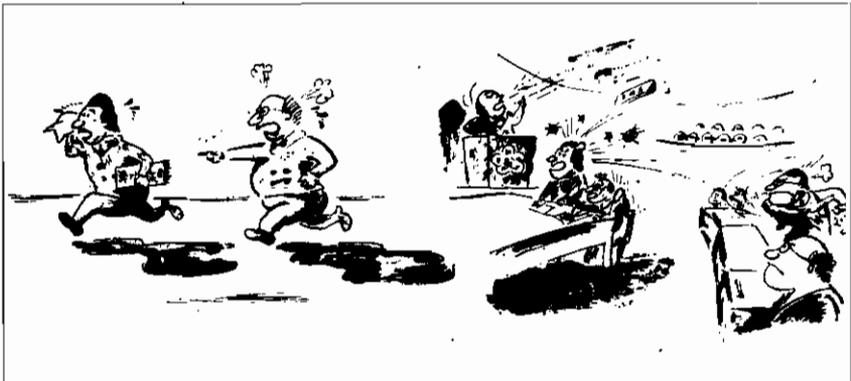
신속하게 친절하게 案內할 것이오니 會員諸位와 速記에 關心이 많은 分은 널리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相談所(Counsellor) : 本協會涉外部 Tel 7802-2472, 2473

# 速記우정

— 편집 위원회 —

- … 祖國光復과 더불어 議會政治의 底流에서 史官의 機能을 다 하고 있는 國會…○
- …速記士! ……………○
- … 궁지와 보람 그리고 슬한 역환 속에서 지내온 35個 星霜 동안 지금도 우…○
- …리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잊적지 않는 이야기들을 여러 선택님과 동…○
- …료들의 도움을 받아 여기에 모아 보았습니다. ……………○



## 그림의 떡

아무리 중요한 國政을 論하시는 議員님이라도 오랜시간 會議를 하시자니 피로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

피로회복을 위해 과일, 음료수등을 들며 會議를 진행하다 보니 앞에서 정신없이 速記에 열중하고 있는 速記士가 마음에 걸려 과일과 음료수를 速記士席에 보내 주신 것. 대단히 고마운 일이나 速記中に 무엇을 어떻게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畫中之餅—

## 남의 속도 모르고

高速發言을 쓰느라 연필이 「노트」 위에서 마구 휘고 있는데 速記를 처음 보시는 議員님은 매우 신기하게 여기셨던지 가로되 曰

“이것이 과연 무슨 字인고?”

速記士는 發言 한마디라도 놓칠까 걱정이 되어 대답도 못하고 필사적으로 울성 이(?)를 그리는 수밖에.

默默不答에 화가 나셨는지 한참 노력보시는 議員님.

“그게 아님대 남의 속도 모르고”

병어리 병가슴 앓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

## 난 어떻게 하랴

1950年代末 野黨의 강경한 反對속에 政治的인 某法案을 ○○黨單獨으로 通過시키려고 某處로 會議長을 옮겨 순식간에 議事棒을 땅땅땅!

뒤늦게 이를 알고 쫓아든 野黨議員들은

이것이 無效라고 주장하며 이 會議의 증거를 없애려고 速記「노트」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짹짹!

그러면 速記士인 난 어떻게 하랴—울고 웃으며 쓰레기통에서 주워 요리조리 모아 붙여야 했으니...

## 基幹兵의 보답

뒤 늦게 軍에 入隊하게 되어 많은 걱정을 안고 ××훈련소에 入所 훈련을 받던 중 한 基幹兵이 반가이 찾아와 매우 의아하였는데. 그 基幹兵 曰

“지난번 國政監查하러 여기 오셨을 때 질문요지를 작성해 주셔서 답변준비가 잘 되었읍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까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웬 덕인가?

그야 속기 배운 덕이지.

## 懷中電燈 아래서

某事件의 現場調査를 위해 某 調查特別委員들을 隨行하던 중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道路上에서 중요한 質疑應答이 벌어졌는데 이 또한 記錄해야만 하는 것이 速記士의 임무.

책상과 의자는 고사하고 캄캄한데서야 束手無策일 수밖에. 그때 한 議員께서 懷中電燈을 비춰 주시자 황송하지만 記錄은 가능.

이것이야말로 과연 速記는 議政活動에 중요한 몫을 차지, 언제 어디서나 記錄해야만 하는 산 證據.

—후배들이여 행복한 줄 아시랴!

速記士는 體格이 작아야?

議員 못지 않게 당당한 체격의 소유자

인 巨驅 速記士 某氏는 國政監査 隨行時 議員보다 앞서 到着하는 행운의 은덕으로 被 監査側으로부터 議員으로 오인받고 驚 恐하게 영감님 대우를 받자 當황하고 어 리등절.

속으로 어찌나 미안했던지 그는 자기의 巨驅를 元망(?)할 수 밖에.

速記士는 體格이 작아야 할 것올.

—그래도 기본은 좋으셨다는 뒷 말함

### 速記士가 없으니

國政監査次 某處에 飛行機로 날아가는 데 議員님들과 隨行員이 各各 다른 飛行 機를 타고 가게 되었다.

이게 센일! 氣象條件이 나빠서 議員님 들만이 먼저 도착.

監査準備는 完了되었으나 速記士가 없 으니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때늦게 헬리콥터 監査場으로 들어서는 速記士들은 죄송천만 몸돌 곳이 없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건 飛行 機와 날씨탓입니다.” 하고 속으로 뇌어 볼 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립 속기사로서의 긍지가 이때부터 생기게 되었나요?

### 고마우신 長官님

行政府側 實務者의 答辯을 記錄하고 있 는 速記士에게 長官께서 現在 發言中인 實務者의 官等姓名을 손수 記載하셔서 직 접 速記席에 전달해 주시기도.

速記士의 애로점을 너무도 잘 알고 계 시니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長官님.

—오호 통제라! 신배를 따르는 후배 長官님이 안계시니 舊官이 明官이렸다—

### 고마우신 議員님 만세!

發言을 끝내신 議員님께서 速記席으로 접근. 어리둥절해하는 速記士에게 자신의 發言에 관계되는 參考資料와 原稿를 던지 시 놓아 주셨다.

速記士의 心情을 이렇게도 속속들이 이 해해 주시니...

고마우신 우리 議員님 만만세!

### 틀니 때문에

틀니를 한 탓으로 發音이 不分明하여 記錄하는데 速記士들이 애를 먹는다는 사 실을 아시고 직접 事務所까지 찾아오셔서 速記士들을 위로, 격려해 주시면 呂議員 님.

—황송하옵게도 위로의 말씀도 틀니 때 문에 잘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 議員과 速記士가 숨바꼭질

自己의 發言이 報道되는 것에 신경이 쓰인 張某議員.

速記「노트」만 없애면 報道가 안될 것으 로 생각하셨던지 記錄을 마치고 나가는 速記士의 「노트」를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그 노트가 없으면 速記士는 原 稿를 作成할 수 없으니 안 빼앗기기 위해 서는 도망을 잘 도리밖에...

이에 議員과 速記士는 쫓고 쫓기는 때 아닌 숨바꼭질을 하게 되었으니 엄숙한 會議場분위기는 한때 어수선.

—그때 불감혔더라면...어휴!

### 틀은대로 쓴대로

速記士가 速記한 사실을 變造한까봐 의

심이 나셨던지 速記「노트」에 自己「사인」을 하는 議員님들.

이것은 速記士는 들은 대로 쓰고 쓴대로 翻文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탓.

어서어서 速記가 무엇인지를 認識시켜 드려야 할텐데...

### 이마에 훈장을

某 議員께서는 다혈질이라 매우 흥분을 잘 하시는데 어느날 發言中에 質問을 듣는 某 行政府 人事의 不誠實한 태도에 역시 불끈 흥분하여 박달나무로 만든 명패를 집어 던졌겠다.

그러나 겨냥이 잘못 되었는지 某 人士는 무사하고 애꿎은 速記士의 이마에 명패. 記錄에만 열중한 速記士는 아픈 것도 모르고 있다가 「노트」에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고서야 상황을 판단했으니.

아, 착한 速記士의 이마에 영원히 남을 歷史的인 훈장이여!

### 速記士의 陸路

速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發言者가 흥분하여 책상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과격한 發言을 하게 되면 이를 기록하는 速記士도 함께 흥분되고 갑작갑작 놀라고 아찔아찔 해집니다.

이래서야 어디 速記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發音이 不正確하거나 外來語, 外國語를 많이 쓰게 되면 專門 知識이 없는 速記士의 경우 記錄하기가 매우 괴롭습니다.

그리고 分間 100字 以下の 低速發言인 경우에는 긴장감을 이완시켜 速記가 오히려 어렵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分間 250字 정도의 速度는 되어야 速記할 맛도 나는 것입니다.

—이 欄만은 議員님들께서 꼭 보셔야겠는데...

### 내가 速記는 왜 배웠던고

오래전 사카린 밀수과동 때 이 사건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기 위하여 某 議員은 증거물을 지참하고 登壇.

신랄히 質問을 하던 중 목격담성이 어렵게 되자 슬그머니 화가 나셨겠다. 찾길에 그 증거물을 국무위원 석으로 보관당이 던지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 증거물은 은통 X물이었으니. 發言臺와 國務委員席은 물론 速記席도 은통 X물범벅.

會議場에는 때아닌 시골의 거름냄새가 진동. 速記士曰 “이게 무슨 꼴인가? 내가 速記는 왜 배워 가지고...”

—사도모님께서 그웃 빠시느라 힘드셨겠네요?

### 나는 閻羅이 아닙니다

60年代初 速記에 대한 社會的 認識이 거의 없었을 때.

速記練習한 종이를 休紙로 사용하기 위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不審檢問하는 데에 수사기관으로 연행, 조사를 받게 되었다. 전혀 알아 볼 수 없는 그 쪽지에 적힌 符號가 暗號文書가 아니냐 하는 추궁이었다.

“정말이지 나는 절대로 간첩이 아닙니다”를 연발했지만 더욱 거세게 다그치는 XXX...

덕분에 速記에 대한 講義를 한참 해주고 實技도 보여 주고 해서 겨우 남득시켜 위기를 모면했지만, 어찌다 내가 速記를 배워 이 꼴을 당해야 하는지...

—잠시나마 경관받아져서께서는 보상으로 밀딩 여러채 새우셨지요!

### 速記엔 加減은 없다

某 選舉法違反事件으로 裁判中인 엄숙한 法廷에 證言者로서 速記士가 불러간 일이 있었는데, 選舉遊說의 遊說內容을 錄音한 것을 速記로 들어서 써준 記錄이 錄音과 틀림이 없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證言하기 위한 것이었다.

檢事와 辯護人團의 反對審問에 應하면서 速記士의 信條를 새삼 되새겨 보았다.

“우리는 들은대로 기록하지 보래거나 빠지 않는다”고 法廷에 계신 여러분 速記에는 加減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 주십시오.

### 천남짜리 피로회복제

지난 108回 國會(12次) 豫決委에서 밤 늦게까지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速記士를 보고 張某委員께서는 質疑의 序頭를 이렇게 꺼내셨다.

“연일 열시간 혹은 열두시간 이렇게 회의록 하는 통에 대단히 個人的으로 미안

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앞에 앉아서 速記를 하고 있는 우리 職員들 오랫동안 방대한 量의 이야기를 記錄에 남겨 놓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速記士에게는 바로 천남짜리 피로회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든 분들이 알아 주셨으면...

### 速記錄에 관한 發言中에서

한 放送「프로그램」에서 韓·日關係에 관한 基本的인 長官입장이 중금하여 물었을 때 某 長官曰

“國會 速記錄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速記錄을 읽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98回 國會本會議에서 宋某議員은 速記錄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했다.

“確定된 法律이 施行되는 과정에 있어서 解釋의 차이가 생겼을 적에 國會速記錄이 중요한 參考資料로 등장하게 된다.”

또 108回 國會運營委員會에서 陸某議員은 “國會議員들이 立法活動을 제대로 벌이고 國政審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速記錄이 필연적인 資料가 된다”고 發言했다.

—속기록의 價値를 알아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議員님!

《詩》

## 幻想曲

權 寧 燦

홀어지며 明滅하는 그림자 아래  
琥珀빛 아치를 그리며  
타오르는 불꽃속에서 춤추는 그대여

따스한 蛾眉를 포근한 옷소매로 감싸며  
어둠에 그늘진 饗宴의 微笑를  
살포시 나에게 보내주지 않으려

뽀얗게 적셔오는 心靈의 旋律도  
떨어지는 이슬방울에 잠재워져  
자욱한 안개처럼 고개를 숙인다.

내 초라한 손길로 너를 어루만져 주리라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쁨의 숨결을 위해  
네 눈을 가리우고 컷전에 두드리리라  
忘却의 숲에서 속삭이는 풀벌레처럼





## 첫발을 내디디며

임 회 용

刻苦의 노력끝에 합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니 불합격이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같이 오손도손 공부하면서 서로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생활했던 많은 친구들—하루의 학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달빛과 별빛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밤하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똑같은 푸념들 “너 오늘 다 썼니?” “오늘 시험도 망쳤어” 손가락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머리가 멍하다, 몸살이 난다는 등의 말이 갈수록 많아지는 부정적인 말들 속에서도 꾸준한 인내와 끈기로 같이 수료하고 채용시험에 같이 응시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건만 어느덧 근무한 지 반년을 넘어서고 있다.

속기사의 꿈을 갖고 열심히 시험지를 넘기던 긴장되었던 가슴도 이제는 풀어질 대로 풀어져 버린 채 114회 정기국회도 끝났고 나의 위치와 달려갈 곳에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볼때 참으로 열매

없는 가을나무를 보듯 한심스럽기조차하다.

왜 나는 무질서 무계획한 심리로 꼭 들어차게 되었을까, 학창시절에는 확고하고도 선명한 목표의식과 계획적인 삶을 살았는데 직장생활 한지 6個月餘가 지나는 동안 이렇게 나태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나를 찾아야겠다. 그런데 무엇에서 나를 찾을 것인가—눈앞에 펼쳐진 흰 구름 등실 등실 떠가는 조각하늘일까, 아니면 선배님들이 정성들여 가꾸시는 난초에게서일까. 자연은 말 없이 번치 않고 우주의 섭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저 조그마한 난초만도 못한 것일까. 그러나 일편이나마 나의 부족을 깨닫고 그 부족을 채우고자 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이냐고 스스로 자위도 해 본다.

그 동안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회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 선생님과 두세명의 절친한 친구들 그리고 부모 형제밖에 몰랐을 때에는 나의 일거수 일투족이 타인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

지 거의 무시하면서 살아 왔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며 다방면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랐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그 동안의 짧은 사회생활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나서 나머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 시간에 내가 이끌려 다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다. 습관적으로 출근시간이 되어 출근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점심 먹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피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항상 무엇을 사고(思考)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행동의 지를 가져야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지나간 정기국회를 음미해 보았다. 정말로 바쁜 나날이었다. 눈코뜰 새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였다. 그러나 24시 1분 전까지 속기를 하고 의사당문을 나설 때 밤하늘 가득 펼쳐진 별들의 속삭임 그리고 반공중에 높이 떠서 온세상을 비추는 밝고 환한 둥근 달 그것은 그대로 한 폭의 명화였다. 추운 날씨에 밤늦게까지 고달프게 일하고 집에 돌아가지 못해 대한 불평속에 총총걸음으로 집에 가기 바쁜 가운데에서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내가 아직 어려서이기 때문일까. 그러나 나의 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고달프더라도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여유는 잃지 않고 싶다. 망중한(忙中閑)의 지혜는 늘 간직하리라.

한 없는 자아 발견과 훈련의 도장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직장에 발을 들여 놓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 간절함을 전하고 싶다.

(국회 속기과)





## 돼지머리의 웃음

李 柱 成

「저... 김성호씨 좀 바꿔주세요.」

벌써 회사에서 해고당한 지 한 달이 지난 남편을 찾고 있었다.

「지금 잠깐 어디 가신 모양이네요. 댁에서 전화왔었다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기는 커다란 죄나 지은 어린애처럼 떨리는 음성으로 재빨리 말했다.

5개월 전에 신입 사원으로 들어와 회사의 분위기가 초차 제대로 파악 못한 인기는 경기의 불황에 따른 경영합리화 방침의 희생물이 된 김성호씨를 특별히 좋아했다. 자상하게 후배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커다란 입을 길게 늘어 뜨리던 표정. 웃음이 그러했다. 마지막 작별인사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인기는 하루종일 떠나지 않는 우울증을 씻기 위해 직장근처 순매점에 들렀다.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자꾸 꼬리를 쳐서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디스크오장에 들어갈려고 하다가 기도한테 들켰잖아. 조그만 자식이 집에서 공부나 해! 그리곤 머리를 툭 치지 않겠나. 가만 있겠어? 재크나이프를 뽑았지」

뒤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지금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녀석이 자기 앞에 앉은 여자친구에게 의기양양 신나서 떠들고 있

었다. 그녀의 소꿉잔도 쳐워져 있었다.

「몸이 좋더라 180정도인데 나는 170이니까 잘못하면 나만 죽는 거야. 재크나이프는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으면 빠지기가 쉽거든. 그 놈도 그걸 아니까 잘보지 못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나?」

여자친구는 어지간히 궁금했던 모양이다. 다리를 반대로 꼬아 자세를 고쳤다.

「한 10분 서로 5m쯤 떨어져서 와! 못 와! 하고 쪼려봤어. 사람들이 말려서 겨우 살았지. 야! 그 다음부터 나는 도라도라디스코장 무사통과야.」

담배가 피고 싶었다. 빈 갑이다. 인기는 초조하다. 허둥지둥 일어나서 아줌마를 부를까 하다가 직접 밖으로 나가 사오기로 작정했다. 막 한 발자국 몸을 움직인 순간, 어찌 인기의 손이 옆 자리의 탁자위 맥주병을 넘어뜨린 것이다. 바지 오른쪽 주머니 부분에서 앞에 까지 축축하다. 병을 바로 세웠다. 반 병가량 엎지러진 것을 보았다.

「정말 죄송하게 뻘었습니다.」

허리를 45도 굽혀 사과를 정중히 보였다.

「괜찮습니다.」

친구 사이로 보이는 사오십대의 두 사

맘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통로에 앉은 가족잡바 차림의 보다 나이먹은 사나이가 굵은 목소리로 웃음을 지어 다시 말을 이었다.

「백주 한 병만 사주시면 되지요.」

자기 귀를 의심하며 인기는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요 오히려 자신들의 넓은 야량에 흠족한 모습이다. 백주 한 병을 사서 주고 뛰어서 밖으로 나왔다.

봄시 추운 날이다.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인기의 마음이 슬기운에 상관없이 더욱 딱딱하다. 저 만큼에 담배가게가 있었다. 거북선 주는 걸 구태여 솔로 바꿔야 그는 직성이 풀린다고 자위했다.

순대집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뒷 자리 고등학교생들이 앉았던 자리는 어머니와 아들로 대신 교체되어 있었다. 그 아들 혼자만 순대국을 먹고 있는 가운데 목하 언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아들의 고향소리가 어머니의 기어 드는 걸손을 압도하여 이미 승부는 일방적으로 결판이 난 셈이었다.

인기는 벽에 시선을 두었다. 하얀 시멘트 위에 벽지처럼 덕지덕지 안주종류나 술종류를 나열해 놓고 있었다. 또 술판매 광고지도 여러 장 있다. 운명아 비켜라! 사나이가 간다.」 꽤 기창한 문구가 그를 자극했다. 그러니까 술먹고 운명을 때려 잡자는 뜻이리라. 종천연색의 동해백주선 전그림에는 잘 생긴데다가 장발도 휘날리는 젊은이가 풀잡은 장면이 몇개로 나뉘어 있다. 여자머리를 거칠게 부둥켜 잡았는가 하면, 드림을 부수는 자세등 한결같이 얼굴을 찌푸려 살기 동등하다.

염치없이 뒤돌아서 모자간의 행동을 훑쳐본 것을 인기는 금방 후회하고 만다. 아들이 맛있게 담배연기를 멀리 허공에다

뿜어대는 것과 맞추어서 어머니가 순대국에 팔려나온 깍두기를 누가 집어갈새라 열심히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저히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결심한 듯, 연거푸 새 잔을 비우자 인기는 벌떡 일어났다. 사방을 험상궂게 두리번거린다. 그리고 그는 한 곳에 시선을 멈추었다. 문가 전열대 가까운 베 짜지머리가 있었다. 몸뚱아리는 잃어버리고 잘리운 목 위의 부분만 털까지 뽀뽀한 채 나두(裸頭)를 과감하게 진시하고 있다. 하지만 결코 부끄러워 하거나 눈총을 의식치 않았다.

차라리 그 짜지머리는 만인을 경멸하는가 비웃기 조차 했다. 아니 너그럽게 웃고 있었다.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한 한편으로는 인자한 자태가 그대로 인기의 가슴으로 전해 왔다. 그는 짜지머리의 질게 늘어뜨려서 만들어낸 웃음이 김성호씨의 따뜻한 웃음하고 비슷하다고 느꼈다.

사실 김성호씨는 흔히 얘기하는 목이 잘려 나간 사람이다. (그것은 짜지의 처지와 비슷하다) 부인한테 본인의 해고 내용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걱정으로 삭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스스로 아무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직장 송별회 때에도 예의 그 특유의 짜지머리의 웃음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 날 이후 인기는 김성호씨의 흉내를 내기 시작한다. 그가 즐겨입었던 하얀 바탕에 빨간 줄무늬가 쳐진 와이셔츠를 즐겨 입고 가리마도 원 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어 빗질을 한다. 또한 인기는 거울을 볼 때면 입을 양 쪽으로 꼭 벌여서 기이하고 징그러운 웃음을 애써 지어내곤 하는 버릇이 생겨서 같은 과 미스락이 자주 놀리고 있다.

(國會 速記課)



# 第11回 全國速記人 體育大會

## 金 正 德

### I. 大會經過

1. 일시 : 1982年 5月 6日 09 : 30
2. 장소 : 國會綜合運動場
3. 參加人員 : 180名(회원 100名 어린이 80名)
4. 競技內容

#### (1) 축구

독수리팀(편집 1, 2계)

사자팀(속기 1, 2계)

청룡팀(속기 3, 4계)

맹호팀(속기 5, 6계)

- (2) 인형업고 달리기(미취학아동)
  - (3) 징검다리(1, 2학년)
  - (4) 사랑따먹기(3, 4학년)
  - (5) 사과물고 달리기(5, 6학년)
  - (6) 플라후프(「팀」별 남녀회원)
  - (7) 여회원 업고 달리기(既婚對未婚)
  - (8) 기마전(3학년이상 남자어린이)
  - (9) 만물상(내빈)
  - (10) 발야구(여회원)
  - (11) 배구(내빈對선배회원)
  - (12) 종합릴레이
  - (13) 가장행렬
5. 대전결과

종합우승 : 청룡팀

최우수상 : 황인하(맹호팀)

우수상 : 이연희(청룡팀)

미기상 : 김종수(독수리팀)

감투상 : 정명진(사자팀)

장려상 : 박기만(청룡팀)

### II. 參觀記

1982. 5. 6

盡한 田園의 오솔길을 따라온 季節의 女王인 5월달담게 화사하고 淸명한 날, 더하여 사랑이는 봄바람은 우리 모두의 흥을 돋구기에 安성마춤이었다.

當協會의 會長이신 朴權欽議員께서는 地域區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고 安仁榮副會長께서 모든 行事を 주관하시게 되었으며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開會辭는 모두가 잊기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

특히 올해의 大會進行 방식은 例年の 축구팀 위주를 탈피하여 남녀 노소 會員들이 한데 어우러져 모든 速記人이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고 흥미롭고 진풍경을 연출할

수 있는 게임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계절 탓인가 바람 탓인가, 例年에 비해 조금은 적은 듯한 人員이 참석했으나 더욱 화기 애애하게 옛情 옛일 옛人心을 더듬어 떠올리는 가운데 즐거운 談笑는 끝날 줄을 모르고 이어졌고 게임 수가 많아 다소 산만한 듯 했으나 진행위원들의 치밀한 計劃 및 준비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와 會員들의 협조로 순서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흥미 진진하게 진행되어 갔다.

미취학 아동으로부터 中年 老紳士까지 모든 速記人 家族들이 모인 자리인지라 지위도 나이도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 팀의 승리만을 위하여 차고 달리고 공을 굴리고 하는 가운데 기상 천외하게 펼쳐지는 폭소대작전(!).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응원 함성, 시간 가는 줄도 지치는 줄도 몰랐다. 또 한편에서는 이 즐거운 순간들을 놓치지 아쉬운 듯 카메라에 담기에 바쁜 회원들. 모두가 한 가족, 우리는 速記人들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것은 축구경기에서 黃寅河 회원의 코너킥이 바나나킥이 되어 상대편 골키퍼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물론이지만 젊은 男會員들의 女裝 가장행렬이 아니었을까. 평소에는 징그럽게 느껴지던 아저씨들이 화장을 하고 연지를 바르고 계다가 치마저고리를 껴져 차려 입으니 그대로 한 폭의 그림

속 여인이요, 양장을 하니 늘씬한 서양 미인이라. 이를 본 모든 이들은 탄성 연발. 여성들의 탄성은 드디어 自省(?)으로 바뀌고...

아쉬움과 피곤함 그리고 뿌듯함 속에서 시상식에 이은 각 팀의 等位선별과 상품증정, 누엇누엇 서산에 기우는 해를 아쉬워 하며 내년에는 좀더 성장한 우리 速記人 가족들의 모습을 기약하면서 「올드 령 사인」은 울려 퍼지고 있었다.

### Ⅲ. 本大會를 위한 贊助者 名單

#### 1. 찬조금

국회의장 정래혁	10만원
박권홍의원(회장)	10만원
지규환 경과위심외판	1만원
강천구 의사과장	1만원
안인영(부회장)	1만원
김진기 지도위원	1만원
정원도 지도위원	1만원
경과위원회	1만원
재무위원회	1만원
농수산위원회	1만원
이승훈 서기관	1만원
이동일회원	1만원
최석모 "	1만원
서병운 "	1만원
김영선 "	1만원
전혜성 "	1만원
노희남 "	1만원
이영열 "	1만원
오준근 "	1만원
김중수 "	1만원

정명길회원 1만원  
 송기철 // 5천원  
 최병수 // 2만원  
 최용하 // 1만원  
 고태중 // 1만원  
 전재곤 // 1만원

김학선회원 1만원  
 동방속기학원 3만원  
 합계 49만 5,000원  
 2. 헌물 찬조  
 고려속기학원 안정근 타올 240매



〈남회원들의 女裝 가장행렬〉

## 用語解説 (16)

### 研究委員會

◎ 景氣豫告指標 : 한국은행이 매월 만들어 내는 景氣豫告指標는 보통 3個月後의 景氣가 어떨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표다.

1.5를 기준으로 해서 1.0과 2.0사이를 나타내면 경기가 안정권에 들어 있다고 보는 반면 2.0 이상이면 지나친 過熱경기 1.0 이하는 不況에 빠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경기의 예고력이 있는 18個項目의 봉계를 종합해서 예고지표를 만드는 데 가령 신용장내도액을 보면 보통 3個月後의 수출동향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에고지표를 통해 경기의 방향을 참작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過信해서는 안된다. 가동률이나 失業率 등 주요 지표가 빠져 있어 정확한 경기에고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스프레드」(Spread) : 유로借款을 들어올 때 그 金利는 흔히 0.75% 또는 0.875%로 표시된다. 이는 「유로」金利 평균치에 0.75% 또는 0.875%를 加算한다는 뜻이며 이때 加算率이 「스프레드」(Spread)이다. 이 「스프레드」는 일종의 국가별 金融信認度의 반영으로서 정치적 안정이나 경제상황이 나빠질 경우 「스프레드」는 높아진다. 그러나 流動金利附借款(Floating Rate Loan)처럼 유로市場金利의 변동에 따라 기준金利가 수시로 바뀌는 것

과는 달리 「스프레드」 자체는 차관계약서에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다.

현재 國家別 「스프레드」는 低開發國 1~1.75% 開發國 0.75~1.25% 西方工業國 0.5%로 되어 있다.

◎ 크레디트 라인 : 「크레디트 라인」(Credit line)이란 國內銀行과 換來來를 하고 있는 外國銀行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信用공여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한도가 찰 때까지 國內銀行과 外國銀行은 서로 서류상으로만 換結계를 하고 한도가 끝나면 정식으로 결제 하게 된다.

그러나 고객(국내외 무역업자)은 미리 정한 조건에 일치하는 한 去來銀行에서 즉시 信用을 공여받아 건별 與信에 따른 번잡성과 승인절차가 생략돼 자금조달상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크레디트 라인」은 특수한 경우 소정신용의 1회신용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잔액기준으로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계속 회전사용하는 회전신용방식이 취해지고 있다.

◎ 熱併合發電 : 熱공급 効用發電을 말하는 것으로 熱(「스팀」 또는 溫水)과 電력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난방 「시스템」이다.

원리는 산업체 「보일러」의 廢熱을 이용하는 것처럼 발전소(火力)에서 나오는 증기를 다시 이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기존 火力發電所는 당초부터 發電目的으로만 건설됐기 때문에 증기를 뽑아 쓰면 發電量에 차질을 초래하게 돼 効用할 수 없다.

熱併合發電은 산업발전의 발전효율이

38%선인데 비해 87%로 크게 높고 25~35%의 「에너지」 원가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발전건설단가나 생산단가도 저렴하고 韓電의 送配電손실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해방지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通信販賣(메일·오더) : 시장에 나가 상품을 사지 않고 상품목록을 보고 염서나 전화주문 등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구입자에게 우편이나 직접 배달을 통해 주문상품이 전달된다.

바쁜 도시생활에서 시장에 직접 나가 상품을 사지 않아 시간과 費用 등을 절약할 수 있고 도매상들의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메이커」에서 소비자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價格이 시중가격보다 10% 이상 싼 점 등 소비자에게 편리한 점이 많다.

美國 등 선진국에선 通信販賣가 크게 번창하고 있다. 그러나 通信販賣는 상품의 규격화, 경찰계판매 등이 전제가 돼야 한다.

◎ 通貨·總通貨 : 일반적으로 돈을 정부용어로 通貨라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돈으로 보느냐에 따라 通貨와 總通貨는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인다.

通貨는 우리가 메일 쓰고 있는 현금이다가 은행의 요구불예금의 합계액이고 總通貨는 여기에도 또 저축성예금까지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78년까지 通貨(M<sub>1</sub>)를 기준으로 통화정책의 기준지표로 삼았으나 79년부터 總通貨(M<sub>2</sub>) 기준으로 규제방식을

변경했다.

兩者의 차이인 저축성예금도 시중에 나돌아 다니는 현금과 같이 유동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特別融資 : 은행이 큰 손실을 보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있거나 自力으로 경영해 나가기 어렵게 되었을 때 韓國銀行이 예외적으로 은행에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물론 韓國銀行이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나쁜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韓銀借入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일반금리보다 높은데 반해 特別融資는 구제금융의 성격으로 현행금리체계 중 가장 낮은 7%로 빌려주고 있다.

◎ 實効成長率 : 교역조건이 악화된다는 것은 싸게 팔고 비싸게 사온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소득이 그만큼 해외로 流出되는 것이다. 이 같은 교역 조건의 변화를 감안한 경제성장률을 實効成長率이라고 한다.

◎ 好材, 惡材 : 증권시장에서 株價가 오르게 할 수 있는 소식을 好材 반대로 떨어뜨리게 하는 나쁜 소식을 惡材라고 한다. 원래 日本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 증권시장도 그대로 쓰고 있다.

가령 「아람」人質석방이 好材라고 하는 이유는 「아람」政情이 수습되어 우리나라 수출이나 건설회사의 사업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美國의 증권시장에서도 「뉴스」라는 항목을 趨勢분석에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그러나 好材가 나왔다고 해도 株價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설블리 주식을 샀다가는 낭패하기 쉽다. 정보가 빠른 증권 시장에서는 好材가 나오기 전에 이미 株價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美國 증권시장에서는 好材에 해당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株價의 弱勢를 내다보는 지표로 삼는다.

◎ 上終價・下終價：株式價格의 급격한 동락에 따른 피해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에 오르고 내리는 주식값에 제한을 두었다. 따라서 일정한 제한폭 이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 없고(上

終價) 도 떨어질 수도(下終價) 없게 만들었다.

제한폭은 액면가격이 아닌 去來價格을 기준으로 500원미만은 30원 1,000원미만은 50원 2,000원미만 70원 3,000원미만은 100원 4,000원미만은 130원 등으로 등락폭에 제한을 두었다.

上終價란 上昇제한에 걸려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價格을 下終價란 당일 株價 하락 제한폭에 걸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격을 말한다.

## 原 稿 募 集

會員 여러분의 權益을 代辦하고 會員相互間的 紐帶와 速記研究 發表의 窓口 노릇을 함으로써 速記文化에 寄與코자 함이 本會誌의 發刊취지인 만큼 여러분의 어떠한 投稿도 환영합니다.

다음 要領에 의해 서슴치 마시고 會誌編輯者에게 보내 주십시오.

◎ 보내실 곳：本協會 渉外部 Tel. (7802) 2473

- ◇ 表紙그림.....가로 11cm, 세로 8cm 정도
- ◇ 研究論文.....200字原稿紙 20~40枚
- ◇ 速記實務.....200字原稿紙 15~25枚
- ◇ 回 想 記.....200字原稿紙 15~25枚
- ◇ 隨 筆.....200字原稿紙 15~20枚
- ◇ 詩, 時調, 散文, 기타提言등

※ 採擇된 原稿에는 所定の 稿料를 드림.

**국어  
영어**
**速記士資格 檢定 試驗**

**제 19 회**

일시 : 1981. 11. 29  
 장소 : 국회속기사양성소

—합격자 명단—

◎ 국어 속기

- 1급 : 경 란 최상원 이승희 정순화 차재영 손미혜 김우성(7)
- 2급 : 이현숙 이윤식 홍종인 김철기(4)
- 3급 : 이춘해(1)
- 4급 : 이신아 정경희 광계안 주혜령 박정숙 최경애 권옥화(7)
- 6급 : 이미정 설재삼(2)
- 7급 : 김희자 김봉수 임애리 윤정화 강순옥 이소연 김용희 박연희  
정영희(9)
- 8급 : 이입현 강상선 신경자 조경애 송재진 방도원 오경애 조항자  
안순화 서중태 배 준 고광민 김영숙 정채진 윤경열 김범기  
이경로 최학규(18)

◎ 영어 속기

- 1급 : 허영순(1)
- 3급 : 김소희(1)
- 4급 : 이신애 박경남 노효정 강애향(4)

**<응시 현황>**

과 목	급 수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비 고
국 어	1	10	10	7	
	2	6	6	4	
	3	27	26	1	
	4	30	30	7	
	5	9	8		
	6	18	13	2	
	7	12	11	9	
	8	19	19	18	
영 어	1	1	1	1	
	2				
	3	5	5	1	
	4	8	8	4	
계		145	137	54	

**제 20 회**

일시 : 1982. 5. 23

장소 : 국회속기사 양성소

—합격자 명단—

◎ 국어 속기

**1급 :** 이춘애 강숙혜 이윤식 박계안 하혜영 유명란 정경희 임희용  
한순덕 홍종인 신승은(11)

**2급 :** 조추월(1)

**3급 :** 박순분(1)

**4급 :** 한기수 강순옥 박진철 윤정화(4)

**5급 :** 홍은주 송영인 이형연 김형태 김월서(5)

**6급 :** 현은신 김성애 송선자 이준태 한명숙 손영애 홍성분 박은실  
안호영 안강희 김범식 정인숙(12)

7급 : 이인현 신경자 조경애 정채진 정홍식 변진경 안순화 김범기  
 서중태 조항자 강상선 김혜주 이영주 박정애 김영숙(15)  
 8급 : 유지영 임현옥 정상덕 안문학 김경숙 김응우 한희경 주대경  
 윤 용 이완옥(10)

<응시현황>

과목	급수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비고
국어	1	36	35	11	
	2	23	21	1	
	3	1	1	1	
	4	13	11	4	
	5	14	14	5	
	6	18	17	12	
	7	23	21	15	
	8	16	16	10	
영어	1				
	2	1	1		
	3	4	4		
	4	5	5		
계		154	146	59	

速記人 住所錄 案内

協會에서는 既發刊한 바 있는 速記人住所錄 作成時에 漏落된 분이나 姓名表 記上에 錯誤가 있는 분 그리고 81年 10月 以後 住所가 變更된 分の 訂正申請을 받고 있습니다. 連絡을 바랍니다.

連絡處 協會 渉外部 Tel:7802—2472, 2475

○ 소 식 란 ○



○ 第30回 冬季無料速記講習(82年 1月 11일부터 1月 30일까지)과 第31回 夏季無料速記講習(7月 19일부터 8月 7일까지)이 서울의 東邦, 高麗 兩學院에서 各各 實施되었는바 그 受講現況은 다음과 같습니다.

(冬 季)

언 어	내 용	접수인원(명)	수강인원(명)	수 료 율(%)
국	어	393	300	76
영	어	167	105	63

(夏 季)

언 어	내 용	접수인원(명)	수강인원(명)	수 료 율(%)
국	어	246	185	75
영	어	125	68	54

○ 第11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가 82년 5月 16日 國會綜合運動場에서 開催되었읍니다.

○ 82년 1月 7日 國會 資料編纂課長이던 金永善회원이 管理課長으로 轉補되었읍니다.

○ 海外出張

1. 崔錫模회원(82. 3. 20~4. 9); 北歐羅巴諸國議員親善使節團 隨行(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2. 徐秉運회원(82. 3. 29~4. 12); 歐洲共同體議員親善使節團 隨行(벨지움, 룩

셈부르크, 歐洲共同體)

3. 金允洙회원(82. 3. 30~4. 8); 外國議會制度研修(自由中國, 日本)
  4. 金基英회원(82. 5. 17~6. 15); 歐洲 및 美洲韓國動亂參戰議員親睦會歐美訪問團 隨行
  5. 申世華회원(82. 6. 7~6. 22); 議員親善協會西部아프리카 諸國訪問團 隨行(가봉, 카메룬, 아이보리코스트)
  6. 朴仁惠회원(82. 7. 19~7. 24); 海外研修(日本天理大學招請)
  7. 宋基喆회원(82. 8. 14~9. 3); 自由中國反共救國青年團초청 國際青年會議參席(홍콩, 日本)
  8. 黃寅河회원(82. 9. 6~10. 7); 濠洲議會研修(濠洲, 뉴우질랜드)
  9. 蔡康熙회원(82. 9. 7~9. 16); 中華民國 및 日本議會制度 視察
- 國會速記職公務員採用 82. 6. 23日 시행된 採用試驗에서 林熙容(議會) 鄭順花(東邦) 朴貞子(東邦) 3名이 합격하였으며 本協會 會員으로 加入하였음.
- 會員動靜
- (1) 辭 職  
尹競億회원(82. 3. 1) 崔吉柱회원, 金化子회원(82. 7. 5)
  - (2) 復 職  
李正九회원(82. 7. 1) 許光鉉회원(82. 8. 18)
  - (3) 結 婚  
李京植회원(82. 5. 1) 朴起晚회원(82. 12. 4) 柳承寬회원(82. 10. 30) 李世喆회원(82. 9. 26)
  - (4) 入 隊  
羅性洙회원(82. 4. 17) 金珠成회원(82. 6. 12)
- 昇 進  
朴大成, 河良培, 洪淳寬會員이 1983. 1. 17日 시행된 事務官 昇進公昇에 合格되었습니다.

## 第15回 定期總會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1. 日 時 : 1981.12.19(土) 13:30
2. 場 所 : 國會事務處 146號室
3. 出 席 : 在籍會員 110名中 94名 出席
4. 附議案件
  - 1) 1981年度 決算承認
  - 2) 1982年度 事業計劃及豫算(案)承認
  - 3) 고문 지도위원추대의건

### 5. 會務報告

#### 1. 이사회 운영

1980년 12월 30일 제14회 정기총회이후 1981년 12월 14일 제115차 이사회까지 7차의 회합을 통하여 법인정기보고, 법인등기(입원), 협회회관 건립방안 등 장단기운영대책, 회원주소록작성, 체육대회개최, 자격검정, 속기경기대회, 회장추대, 속기제발간, 제15회 정기총회개최 등 협회운영을 위한 제결의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여 지도위원을 비롯하여 관심있는 회원들의 고견을 청취한 바 있음.

#### 2. 섭외 활동

INTERSTENO(국제속기타자연맹)과 교류하여 자극 속기제 현황, 동 연맹에의 가입절차, 세계속기경기대회 현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미상원 Chief Reporter(주임속기사)와 일본 속기협회에 교신하여 미상원속기제 현황과 일본 속기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TV, 라디오에 회원들이 수차(8월 28일, 10월 14일 KBS라디오, 9월 27일, 10월 10일 KBS-TV)에 걸쳐 출연하여 본 협회의 현황등 속기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협력을 통해 협회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전국속기인주소록을 발간 배포하였음.

#### 3. 회지 발간

81년 12월 19일 속기제 제22호를 발간하였음.

#### 4. 속기경기대회 개최

제 3회 전국속기경기대회를 81.10.9 한글날을 기해 한국방송공사후원과 파이롯트만년  
필(주) 협찬(242만원)으로 개최하였음.

5. 제10회 전국속기인체육대회 개최

일 시 : 1981년 10월 1일

장 소 : 한국도로공사구장

참가인원 : 내빈, 회원가족포함 295명

6. 제 1회 이사장배 전국속기인테니스대회 개최

일 시 : 1981년 8월 30일

장 소 : 국회테니스코트

참가인원 : 39명

7. 속기강습

	기 간	장 소	법 식	인 원	참 가인원
동 기	81.1.12--1.31	동방속기학원	동 방 식	국어 377 영어 160	국어 261 영어 98
하 기	81.7.30--8.14	동방속기학원 고려속기학원 부산고려학원	동 방 식 고 려 식 고 려 식	국어 157 영어 97 부산(국어)30	국어 134 영어 53

8. 자격검정

회 수	일 자	응 시 자	합 격 자
18	81. 5. 3	국어 120 영어 20	국어 34 영어 6
18-1(특별)	6.13	국어 6	2
18-2(특별)	8. 3	국어 26	12
19	11.29	국어 110 영어 27	

9. 연구활동

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용어집"발간을 위한 자료수집을 계속하고 있으며 기계속기개발  
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10. 학교, 사회단체 속기강습

홍익고등학교 90명

보성여자고등학교 120명

## 6. 議決된 案件

### (1) 1981年度 決算

#### 세 입

예 산 과 목 관 항	81년도	81년도	증 감 △	산 출 근 거	비 고
	세입예산액	세입결산 예산액			
기 본 수 입	1,036,000	604,250	△431,750		
월 회 비	1,026,000	582,250	△443,750		
입 회 비	10,000	22,000	12,000		
사 업 수 입	3,730,000	4,068,500	338,500		
방 학 강 습	3,050,000	3,541,000	491,000	국어 564×4,000 =2,256,000	
자 격 검 정	680,000	527,500	△152,500	영어 257×5,000 =1,285,000	
찬 조 금	100,000	1,910,000	1,810,000	파이롯드 참조	
잡 수 입	700,000	896,990	196,990	정기예탁금이자수 입, 광고수입	
이 월 금	3,687,952	3,687,952			
계	9,253,952	11,167,692	1,913,740		

#### 세 출

예 산 과 목 관 항	81년도	81년도	증 감 △	산 출 근 거	비 고
	세출예산액	세입결산 예산액			
회 의 비	544,000	572,340	28,340		부족분 예비비
정 기 총 회	400,000	412,700	12,700		
회 의 비	144,000	159,600	15,600		
이 사 회	100,800	137,020	36,220		
자 격 심 위	21,000	7,600	△13,400		
연 구 위	15,000	14,000	△1,000		
속기계편집	7,200	1,020	△6,180		
경 상 비	193,000	271,930	78,930		
사 무 비	93,000	163,430	70,430		
사무용품비	18,000	82,700	64,700		
인 쇄 비	48,000	51,650	3,650		
통 신 비	15,000	20,080	5,080		
관 경 료	12,000	9,000	△3,000		
활 동 비	100,000	108,500	8,500		
수 용 비	30,000	4,708	△25,292		

공	과	금	30,000	4,708	△25,292
사	업	비	3,292,200	4,482,750	1,190,550
방	학	강	2,078,200	1,935,350	△142,850
	입	대	100,000	200,000	100,000
	교	재	315,000	312,000	△3,000
	강	사	360,000	325,000	△35,000
	광	고	1,200,000	918,000	△282,000
	인	책	40,000	81,750	41,750
	접	수	43,200	63,600	20,400
	사	례	20,000	35,000	15,000
속	기	대	342,000	990,410	853,410
	입	대	3,000	0	3,000
	인	책	10,000	20,000	10,000
	광	고	200,000	0	△200,000
	출	제	2,000	30,000	28,000
	감	독	15,000	123,700	108,700
	채	점	10,000	130,000	120,000
	상	품	100,000	465,760	365,760
	기	타		220,950	220,950
자	격	검	362,000	248,500	△113,500
	용	지	20,000	10,000	△10,000
	인	책	200,000	0	△200,000
	광	고			
	출	제	8,000	16,000	8,000
	낭	독	90,000	100,000	10,000
	감	독	24,000	33,000	9,000
	취	입	20,000	10,000	△10,000
	기	타		79,500	79,500
학	교	·	100,000	90,000	△10,000
속	기	보	100,000	90,000	△10,000
체	육	대	410,000	1,218,490	828,490
	입	대	30,000	49,000	19,000
	용	구	50,000	30,000	△20,000
	상	품	120,000	297,440	177,440
	식	대	200,000	469,500	269,500
	담	사	10,000	10,000	0
	기	타		362,550	362,550
섭	외	비	554,700	866,500	332,500
섭	외	환	120,000	382,500	262,500

회 지 받 간	434,700	484,000	70,000	
인 진 비	20,000	10,000	△10,000	
원 고 료	76,000	74,000	△2,000	
인 해 비	34,000	400,000	70,000	
발 송 비	8,700		△8,700	
연 구 비	160,000	45,000	△115,000	
속기 학술 연구	160,000	45,000	△115,000	
자료수집비	70,000	45,000	△25,000	
인 해 비	40,000		△40,000	
연 구 비	50,000		△50,000	
관 공 비	240,000	239,440	△560	
예 바 비	4,240,052	144,500	△1,666,652	회의비 28,340
				경상비 78,930
				사업비 1,190,550
				섭외비 332,500
이 월 금		4,540,524		현금 599,449
				예탁금 3,500,000
				특별입금 441,075
계	9,253,952	11,167,692	1,913,740	

구분 \ 년도	1980년도	1981년도	증 감
총 세 입	6,749,967	11,167,692	4,417,725
총 세 출	3,062,015	6,627,168	3,565,153
이 월 금	3,687,952	4,540,524	852,572

감 사 보 고 서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981년 12월 12일 현재 본 협회의 재정현황을 감사한 결과 결산서와 상위없음을 보고합니다.

1981년 12월 19일

감 사 총 기 천  
" 고 태 중

(2) 1982年度 事業計劃 및 豫算案

가. 事業計劃

사 업 명	목	표	예 산 액	비고
1. 방학이용속기강습	대상 : 남녀 대학생 및 일반인 기간 : 3주간		2,282,000	

	회수 : 2회(동기, 하기)	
2. 각급학교 및 사회 단체 속기강습	실업계고등학교 및 대학이나 속기필요 로 하는 사회단체의 요청에 의함.	100,000
3. 자격검정시험	대상 : 속기학술 연수자 회수 : 정기 2회 및 특별검정	712,000
4. 속기경기대회	대상 : 전국속기학술 연수자 회수 : 년 1회	1,734,000
5. 속기학술연구	1. 용어집 발간 2. 기계속기에 관한 연구 3. 속기법식의 개량	200,000
6. 회지발간	속기문화 창달	535,000
7. 국제속기타자연맹 가입	동연맹에 가입함으로써 각국 속기계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본 협회의 발전을 도 모함.	100,000

나. 豫 算  
세 입

예 산 과 목 관 항	81년도	82년도	증 감 △	산 출 근 거	비 고
	예산액	예산액			
기 본 수 입	1,036,000	1,036,000			
월 회 비	1,026,000	1,026,000		$500원 \times 171인 \times 12 = 1,026,000$	
입 회 비	10,000	10,000		$1,000원 \times 10인 = 10,000$	
사 업 수 입	3,730,000	4,900,000	1,170,000		
방 학 강 습	3,050,000	4,000,000	950,000	국어 5,000원 $\times$ 500인 = 2,500,000 영어 6,000원 $\times$ 250인 = 1,500,000	
자 격 검 정	680,000	900,000	220,000	국어 1, 2급 3,000 $\times$ 50인 $\times$ 2회 = 300,000 3-8급 2,000 $\times$ 50인 $\times$ 2회 = 400,000 영어 1-4급 5,000 $\times$ 20인 $\times$ 2회 = 200,000	
찬 조 금	100,000	500,000	400,000		
잡 수 입	700,000	800,000	100,000		정기예탁금이 자수입, 광고수입
이 월 금	3,687,952	4,540,524	852,572		
계	9,253,952	11,776,524	2,522,572		

세 출

예 산 과 목 관 항 목	81년도	82년도	증 감	산 출 근 거	비 고
	예산액	예산액	△		
회 의 비	554,000	916,000	372,000		
정 기 총 회	400,000	700,000	300,000		
기 념 품 비		300,000			
식 대		300,000			
기 타		100,000			
회 의 비	144,000	216,000	72,000		
이 사 회	100,800	200,000	99,200	100,000원×2회=200,000	
자 격 심 위	21,000	12,600	△8,400	600×원7인×3회=12,600	
연구위원집위	22,200	9,000	△13,200	600원×5인×3회=9,000	
경 상 비	193,000	273,000	80,000		
사 무 비	93,000	123,000	30,000		
사무용품비	18,000	24,000	6,000	2,000원×12월=24,000	
인 세 비	48,000	60,000	12,000	5,000원×12월=60,000	
통 신 비	15,000	24,000	9,000	2,000원×12월=24,000	
필 경 료	12,000	15,000	3,000	3,000원×5회=15,000	
활 동 비	100,000	150,000	50,000	2,000원×5인×15회 =150,000	
수 용 비	30,000	30,000			
공 과 금	30,000	30,000			
국제속기타자연맹가		100,000	100,000		가 입 정
가 입 및 년 회 비		100,000	100,000		
사 업 비	3,851,200	5,676,000	1,824,800		
방 학 강 습	2,078,200	3,130,000	1,051,800		
임 대 료	100,000	160,000	60,000	2,000원×20일×2회×2실 =160,000	
교 재 대	315,000	450,000	135,000	국어 600원×500권 =300,000원 영어 600원×250권 =150,000원	
강 사 료	360,000	560,000	200,000	국어 2,000원×20일×6인 ×2회=480,000원 영어 2,000원×20일×1인 ×2회=800,000원	
광 고 료	1,200,000	1,800,000	600,000	450,000원×2×2회 =1,800,000	

인쇄비	40,000	80,000	40,000	40,000×2회=80,000
접수수당	43,200	60,000	16,800	1,000원×5인×6인×2회=60,000
사책비	20,000	20,000	0	10,000×2회=20,000
학교, 사회단체 속기강습	100,000	100,000	0	10,000×10회=100,000
보조비	100,000	100,000		
속기경기대회	342,000	1,734,000	1,392,000	
임대료	3,000	10,000	7,000	
인쇄비	10,000	20,000	10,000	
광고료	200,000	900,000	700,000	450,000원×2=900,000
출제수당	2,000	9,000	7,000	3,000×3인=9,000
감독수당	15,000	25,000	100,000	5,000×5인=25,000
체접수당	12,000	100,000	88,000	5,000×20=100,000
상품대	100,000	550,000	450,000	대상 1인 150,000 금상 2인 100,000×2=200,000 은상 2인 50,000×2=100,000 동상 2인 30,000×2=60,000 장려상 2인 20,000×2=40,000
준비비		20,000	20,000	
선전비		100,000	100,000	TV, 라디오, 신문등
자격검정시험	362,000	712,000	350,000	
용지및인쇄	20,000	30,000	10,000	
광고료	200,000	450,000	250,000	
출제수당	8,000	18,000	10,000	국어 3,000×2인 ×2회=12,000 영어 3,000×1인 ×2회=6,000
감독수당	90,000	150,000	60,000	5,000×15인×2회 =150,000
접수수당	24,000	24,000		600×20인×2회=24,000
취입비	20,000	40,000	20,000	20,000×2회=40,000
집외비	554,700	685,000	130,300	
집외활동	120,000	150,000	30,000	10,000×15회=150,000
회지발간	434,700	535,000	100,300	
편집비	20,000	20,000		
원고료	76,000	100,000	24,000	500원×200매=100,000

인 채 비	330,000	400,000	70,000	국판 800부 10,000×40면=400,000
발 송 비	8,700	15,000	6,300	국외 500×10=5,000 국내 250×40=10,000
연 구 비	160,000	200,000	40,000	
속기 학술 연구	160,000	200,000	40,000	
자료 수집비	70,000	100,000	30,000	
인 채 비	40,000	50,000	10,000	
연 구 수 당	50,000	50,000		
판 공 비	240,000	300,000	60,000	2,500원×12월=300,000
예 비 비	4,240,052	3,596,524	△643,528	
계	9,253,952	11,776,524	2,522,572	

### 〈3〉 고문 지도위원 추대

고문 : 禹炳奎(국회사무총장)   曺秉完(국회사무차장)   趙琮鉉(국회도서관장)   權孝燮  
(MBC전부이사)

지도위원 : 姜駿遠   金星漢   金鎮基   金天漢   李起昆   李東根   張基泰   鄭源道

### 會費納付案内

協會에서는 會員諸位의 회비납부에 夙의를 圖謀하기 위하여 우편대체구리(532689)를 마련했아온 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회비는 月 500원(年 6,000원)입니다.

協會運營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참신한 의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 會 務 日 誌

81. 12. 19 第15回 定期總會
82. 1. 11~30 第30回 冬季速記無料講習
2. 10 法人定期報告書提出
4. 7 會長就任承認(文公部)
4. 9 資格取得者 現況報告  
第116次 理事會
5. 5 體育大會(250名 참가)
5. 23 第20回 資格檢定試驗(146名應試)
7. 19~8. 7 第31回 夏季速記無料講習
9. 22 資格檢定試驗業務移管(職業訓練管理公團)
12. 10 速記士資格手帖發給申請(117名)
12. 15 第117次 理事會

편 집 후 기

○ 會員들의 海外出張이 빈번했던 지난 한 해,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速記人들의 活動領域도 점점 넓어져만 간다. 우리가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열심히 편다면 그늘에 가려진 速記文化도 머지 않아 이 땅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으리라.

—杓—

○ 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에 速記文化를 꽃 피우기 위하여 한시도 게으를 수 없었던 많은 선배님들, 끝간 메를 모르고 이어지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우리 速記인이 아니고는 느낄 수 없는 정한 감동이 있다. 이번 號에는 이러한 흠여져 있는 速記史의 조각들을 모아 「速記수첩」을 엮어 보았다. 협조해 주신 辛후배·동료會員 제위께 감사를 드린다.

—承—

○ 언저리에 있을 때는 자게만 보이던 「速記界」가 막상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보니 마냥 크게 보인다. 「速記界」의 앞날을 위해 會員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어린 체적을 부탁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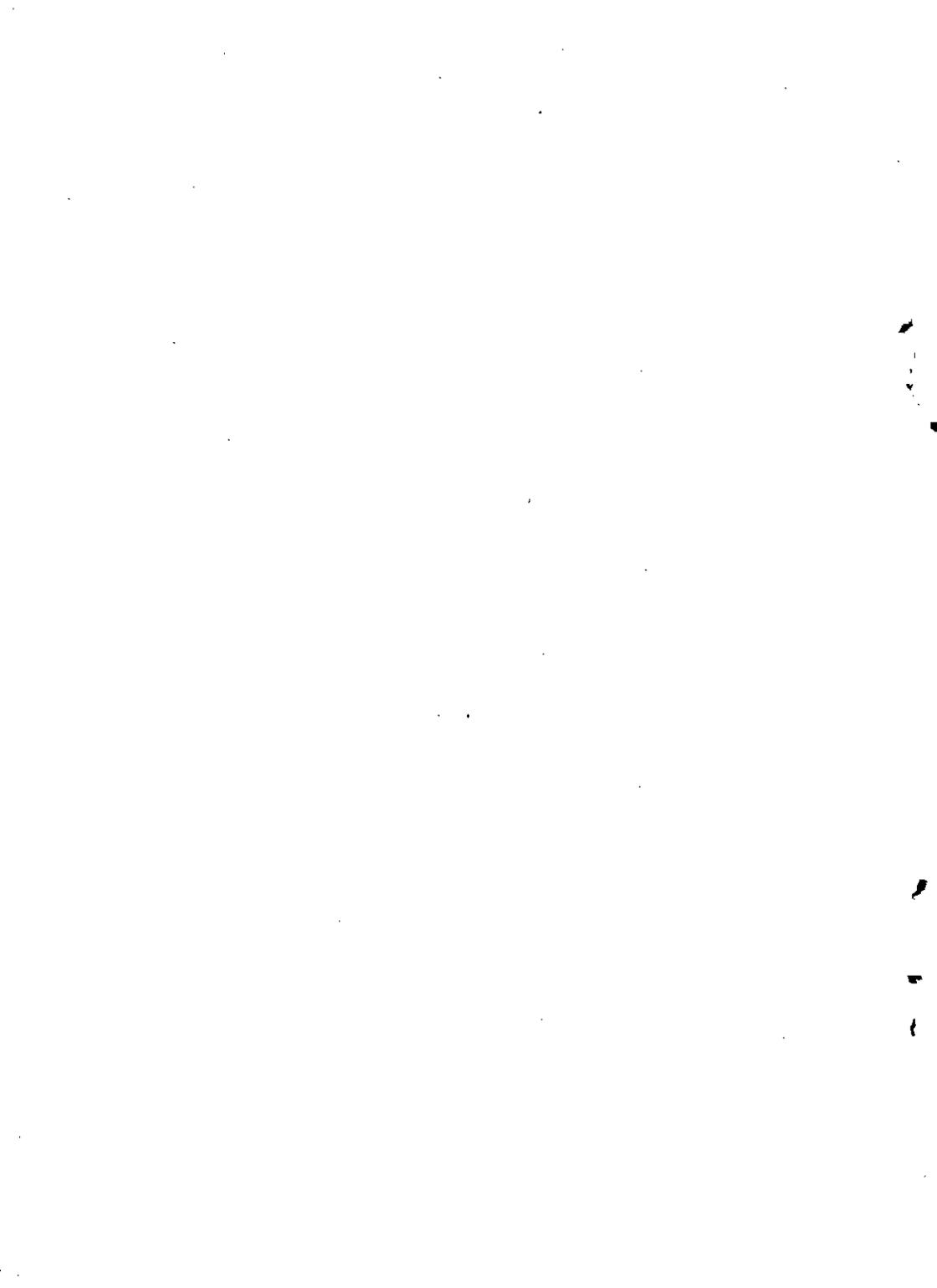
—仁—

○ 例년에 비해 한달가량 늦어지는 總會 덕택으로 좀더 조심스럽고 여유있는 마음으로 편집을 해 보았다. 23號를 거치는 동안 「速記界」가 이마만큼 成長하고 알찰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회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 때문이리라.

—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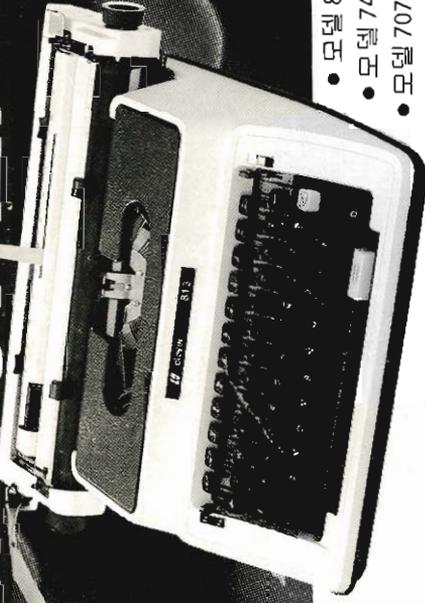
<b>速 記 界</b>		第 23 號	
-----			
1983年 1月 31日 發行			
發行人	朴	權	欽
編輯人	崔	滉	洙
-----			
社團 大 韓 速 記 協 會			
法人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1			
Tel. 7802-2471~6			

非 賣 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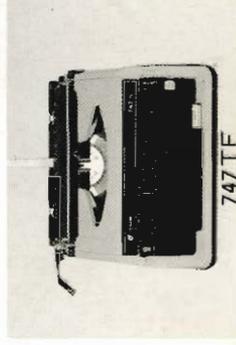


세련된 디자인과 현대적 감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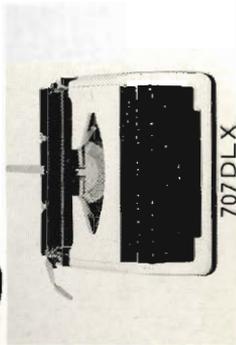
# 크로바/타자기



- 모델 813 : 178, 200 원
- 모델 747 TF : 95, 000 원
- 모델 707 DLX : 85, 000 원



747 TF



707 DLX

**경방 機械工業(株)**

한국 수출산업공단 구로 3단지내

전화문의 : 854-0161 ~ 5

## 學院案內

♣ 創立 35周年！

- ◇ 우리나라 最古의 速記士私設養成所
- ◇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指定養成機關

한글速記科

- 1. 本科……………4個月
- 1. 研修科……………1年
- 1. 資格……………高卒以上

英文速記科

- 1. 本科……………3個月
- 1. 研修科……………6個月
- 1. 資格……………高卒以上

修了後

立法府，法院，各官公署，各言論機關，各軍速記兵，外國人商事，  
留學時의 筆記 및 알바이트 等 高級就職으로 社會 進出 容易

官認 東邦速記學院 TEL. (765) 4266

## 學院案內

- \* 國家技術 資格檢定試驗 對備班 募集
- \* 高卒(在) 以上 男·女
- \* 國會，法院，各行政府處，言論報道機關，銀行，各軍速記兵，教育機關，國營 및 大企業體等으로 進出
- \* 各種 會議錄 作成 및 秘密 錄音 Tape 再生
- \* 通信通育……郵票 5枚
- 國內 最初의 立體 特殊콘트롤 리듬을 利用한 精讀을 爲한 Rapid Reading 速讀教育

高麗速記教育學院 TEL. 392-5373

(立體速讀教育部)

西大門區 忠正路 3街 189 信元빌딩 402號